

홍범식 “AI, 국가 대항전 진입… 국회·정부·산업 협력 절실”

〈LG U+ 대표〉

과방위원·관계자 50여명 초청
LLM 엑사원, sLM 익시젠 소개
“윤리·실용성 갖춘 AI 개발할 것”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라 정의하며, 사람 중심의 신뢰받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범식 대표는 15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은 과방위 위원 및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AI 기술 시연과 생태계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홍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후발주자이지만 이를 결코 늦었다고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LG유플러스, LG AI연구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형두 간사,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정동영 의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뒷줄 왼쪽부터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부장, 한민수 의원, 조인철 의원, 이정현 의원, 이훈기 의원,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LG유플러스

그는 이어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잘 만든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연에서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과 이를 경량화한 소형언어모델(sLM) ‘익시젠(IXI-GEN)’이 소개됐다.

LG유플러스는 이 모델을 활용해 콜

센터 상담 자동화, 대화 요약, 챗봇 등 다양한 B2B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상담 분석 및 요약이 가능한 ‘AI 컨택센터(AICC)’ 기술은 의료·금융 등 다수 산업군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LG유플러스의 AICC는 STT/TA(음성인식·텍스트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연어 이해도와 상담 응답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상담 중 핵심 키워드에 기반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상담지원, 상담 내용 자동 요약 및 분류, 챗봇 및 자동 QA 기능 등 다양한 고도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LG AI연구원은 기업용 챗봇 ‘챗 엑사원’의 실제 구동 모습을 시연하며 다양한 도메인 지식을 학습한 대규모 언어모델(LLM)로서의 강점을 강조했다.

‘엑사원 3.5’는 전문 산업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연구에 집중한 모델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했다. 특히 엑사원 3.5는 최근 스탠포드대학교 인간 중심 AI 연구소(HAI)가 작성한 ‘2025 AI 인덱스’ 보고서에서 국내 유일의 주목할만한 AI 모델로 선정되며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AI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으로 진입했다”며 “한 기업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하는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과방위 위원들의) 방문이 민간과 국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LG는 앞으로도 AI 기술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성과 실용성을 갖춘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도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글로벌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질적 효율을 주는 AI 기술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참관한 과방위원들도 LG의 기술력과 철학에 공감을 나타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LG는 제조업과 통신을 모두 갖춘 독보적 기업으로,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김현 의원과 최형두 의원도 “AI 생태계 완성과 사회적 활용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 기술 시연을 넘어 입법·정책·R&D 협력까지 포괄하는 다각적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향후 AI 인재 양성, 규제 정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아태·미주지역으로 AX사업 확대 “코딩·지시수행·이해능력 향상된 GPT-4.1”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서 협력
구글의 제미니·버텍스AI 활용해
제조·금융 등에 서비스 구축 계획

LG CNS가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 지역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LG CNS는 현신군 대표이사 사장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 행사에서 구글 클라우드 CEO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카란 바즈와 등을 만나 양사 협력을 공고히 했다고 15일 밝혔다.

LG CNS는 클라우드·인공지능(AI)



현신군 LG CNS 사장(오른쪽)과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가 아태 및 미주 지역에서의 클라우드 기반의 AX 사업 다각화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기술력과 산업 전문성, 정보기술(IT) 서비스 역량을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클라우드 솔루션과 결합해 아시아

태평양과 미주 지역 고객사의 전사적 AI 도입을 돕는다.

LG CNS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니’와 구글 클라우드의 기업용 AI 플랫폼 ‘버텍스 AI’ 등을 활용해 제조·금융·유통·통신·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백개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급성장하는 헬스케어·바이오 AX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예컨대 연구원들이 의약품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얻도록 AI 에이전트, 유전체 데이터 분석 및 단백질 구조 예측 신약 개발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고 LG CNS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카카오엔터 웹툰신작 4종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에 4월 화제의 신작 4종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지난 1일 론칭한 ‘나는 한 편의 극을 보았다’와 ‘암흑명가 천재 만나기가 되었다’는 동명의 웹소설을 웹툰화한 노블 코믹스다. 원작의 서사를 흡인력 있게 그려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16일 공개되는 카카오웹툰 ‘연습생’은 조회수 4억회를 기록한 ‘나의 빛나는 세계’ 등으로 잘 알려진 마루 작가의 신작이다.

카카오웹툰의 인기 무협 웹툰인 ‘허약선생’도 오는 18일 시즌4로 복귀한다. 철범 작가가 쓰고, 울펜 작가가 그린 ‘무협 아카데미’ 장르의 작품이다.

/김현정 기자

SKT-SK텔링크 “손쉽게 기내 와이파이 연결”

‘T 기내 와이파이 자동로밍’ 서비스

SK텔레콤이 SK텔링크와 함께 세계 최초로 ‘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 서비스를 선보이며 기내 통신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은 고객이 사전에 한 번만 가입하면, 별도의 바우처 입력이나 인증 절차 없이 기내에서 자동으로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서비스다.

기존 기내 와이파이 이용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여부 확인과 사전 결제, 탑승 후 포털 접속 및 회원 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SKT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T로밍 홈페이지나 공항 로밍 센터에서 간단히 가입만 하면, 탑승 후

자동으로 와이파이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자동 인증 방식에는 ‘패스포인트’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 끊김 없는 연결과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항공 서비스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SK텔링크는 SKT의 고객 인증 시스템과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의 위성통신 기술을 결합해 항공 환경에서도 자동 인증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현재 자동 로밍 방식은 대한항공 일부 항공편에서 우선 제공되며, SKT는 향후 국내 주요 항공사로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바우처 방식은 대한항공 외에도 카타르항공, 루프트한자, 에어캐나다, 에티하드 등 5개 항공사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오픈AI, API 통해 모델 3가지 공개

오픈AI가 14일(현지 시간) 코딩, 사용자 지시 수행, 장문 맥락 이해 능력이 대폭 향상된 GPT-4.1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날 오픈AI가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롭게 공개한 모델은 GPT-4.1, GPT-4.1 미니, GPT-4.1 나노 등 모두 세 가지다.

이번에 공개된 GPT-4.1 미니는 소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능 평가에서 전작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GPT-4.1 나노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모델로, 분류나 자동 완성처럼 실시간성이 중요한 작업에 적합하다. GPT-4.1은 자율적으로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늘었고, 프론트엔드 개발(사

용자가 직접 접하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화면을 만드는 것)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장문 맥락 처리 능력도 업그레이드됐다. GPT-4.1은 세법 규정처럼 복잡한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블루 제이(Blue J)’의 세무 시나리오 평가에서 GPT-4o 대비 53%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또 톰슨 로이터의 AI 법률 도우미 ‘코카운슬’에 GPT-4.1을 도입해 테스트한 결과, 문서 리뷰 정확도가 전작과 비교해 17% 향상됐다. 모순되는 조항이나 보안 문맥을 정확히 식별해냈고, 법률 분석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교한 문서 해석 능력이 강화됐다. GPT-4.1 시리즈는 현재 API를 통해서만 제공된다.

/김현정 기자

KT-JTS, 태국어 LLM 상용화 성공

국내기업 최초 해외에 AI 인프라 구축

KT가 국내 기업 최초로 ‘거대언어모델(LLM)’ 플랫폼을 수출했다. KT는 태국 자스민테크놀로지솔루션(JTS)과 함께 추진한 태국어 거대언어모델(LLM)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에 종합 AI 인프라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어 기반 LLM 모델 개발 ▲AI 운영 환경 ‘LLM 오픈(Ops)’ 구축 ▲GPU 팜 조성 등 AI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전 과정을 망라한 ‘올인원’ 방식으로 진행됐다. KT는 자회사 KT클라우드 및 LLM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와 협업해 1년 만에 인프라부터 모

델까지 일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KT는 ‘LLM 오픈’을 통해 JTS가 복잡한 AI 학습 및 운영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태국 현지에 GPU 팜도 조성해 향후 AI 구독 서비스(GPUaaS)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가장 큰 성과는 태국어 특화 LLM의 상용화다. KT와 업스테이지가 공동 개발한 이 모델은 태국어를 포함해 영어, 한국어를 지원하며, 방대한 현지 데이터를 학습해 정치·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응답한다. 이는 현지와 측면에서 높은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KT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AI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김서현 기자